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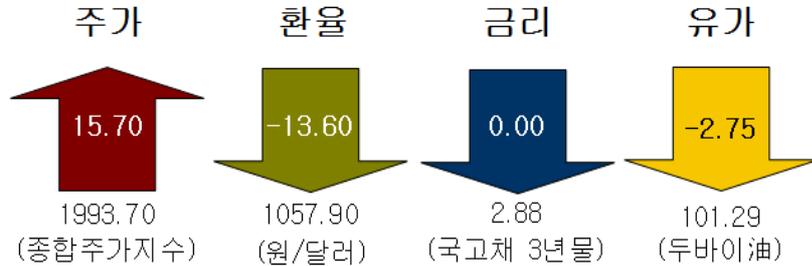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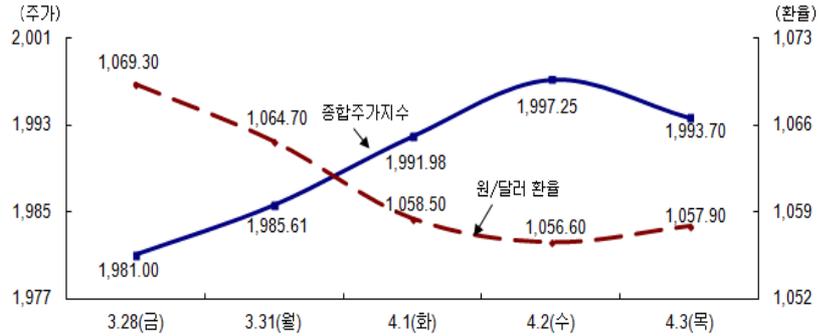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 베이비붐세대 및 다중채무가구의 가계부채 문제 심각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28~4.3)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김 광 석 선임 연구원 (2072-6215, gskim@hri.co.kr)
 이 준 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Executive Summary

□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 자영업 가계부채의 분석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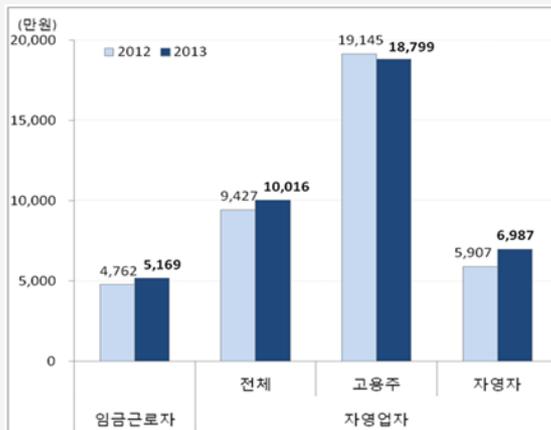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6%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가구당 가계부채도 10,016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하고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서 채무불이행 우려가 크다.

■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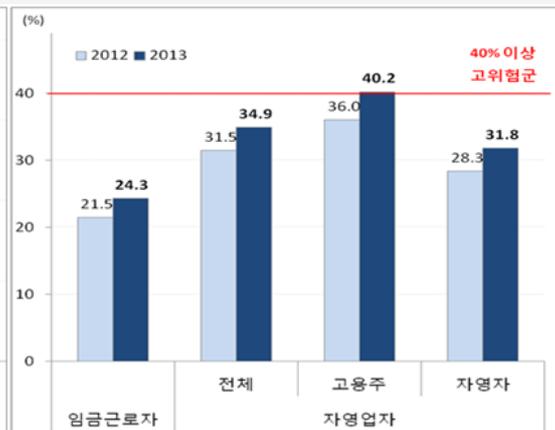
채무상환능력 측면과 부채구조 측면으로 나눠 특징을 분석하였다.

채무상환능력 측면 : ①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및 이자비용이 임금근로자 가구의 두 배에 육박한다. 가계부채는 2013년에 각각 10,016만원과 5,169만원이고, 年이자비용은 각각 526만원과 245만원이다. ②자영업자 가구는 주로 사업자금(23.6%)과 생활비마련(31.1%)을 위해 대출 받는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는 상대적으로 교육비(26.4%)와 부동산 구입(20.9%)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③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소득의 증가세와 대조적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2012년 4,425만원에서 2013년 4,397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4,517만원에서 4,707만원으로 증가하였다. ④앞의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다. 자영업자 가구의 채무상환비율($\frac{\text{원리금상환액}}{\text{가처분소득}}$)은 31.5%에서 34.9%로 3.4%p 올랐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21.5%에서 24.3%로 2.8%p 상승하였다.

<종사상지위별 가구당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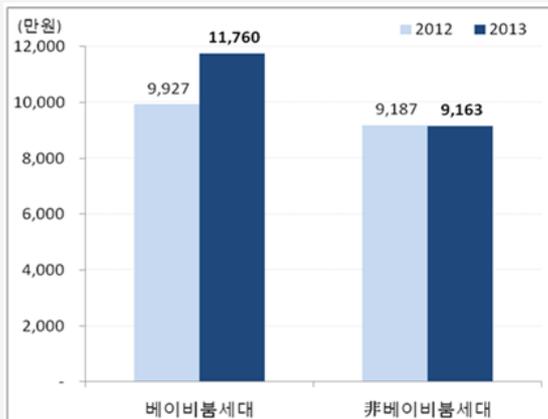
<종사상지위별 채무상환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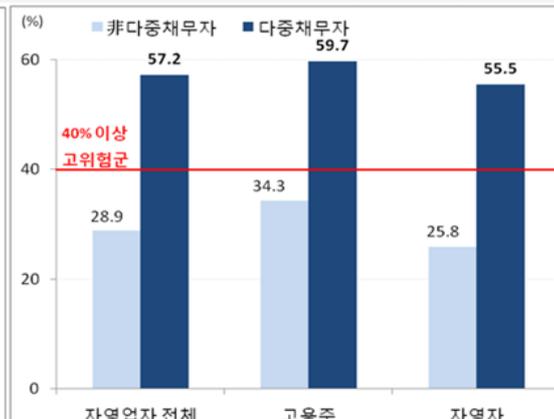
⑤자영업자 중에서도 베이비붐세대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베이비붐세대 가구의 가계부채는 9,927만원에서 11,760만원으로 18.5%나 증가한 반면, 非베이비붐세대는 9,187만원에서 9,163만원으로 0.3% 감소하였다.

부채구조 측면 : ⑥자영업자 가구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신용대출액은 1,327만원에서 1,678만원으로 26.4% 커졌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822만원에서 889만원으로 8.2% 증가하였다. ⑦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비은행권 부채의존도가 커졌다.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총부채 중 비은행권 비중이 24.1%에서 26.9%로 2.8%p 상승하였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20.7%에서 23.4%로 2.7%p 상승하였다. ⑧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원리금분할상환이 늘었으나, 여전히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다. 금융대출 상환방법 중 만기일시상환의 비중은 40.6%에서 37.9%로 2.7%p 감소한 반면, 원리금분할상환은 29.8%에서 31.1%로 증가하였다. ⑨자영업자 중에서도 다중채무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다중채무가구는 가계부채가 17,913만원에서 20,890만원으로 16.6% 증가한 반면, 非다중채무자가구는 7,855만원에서 7,222만원으로 8.1% 감소하였다. 채무상환비율도 다중채무가구가 52.5%에서 57.2%로 4.7%p 상승하여, 非다중채무가구가 27.3%에서 28.9%로 1.6%p 상승한 것보다 더 악화되었다.

<자영업자 중 베이비붐세대, 非베이비붐세대의 가계부채>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非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비율(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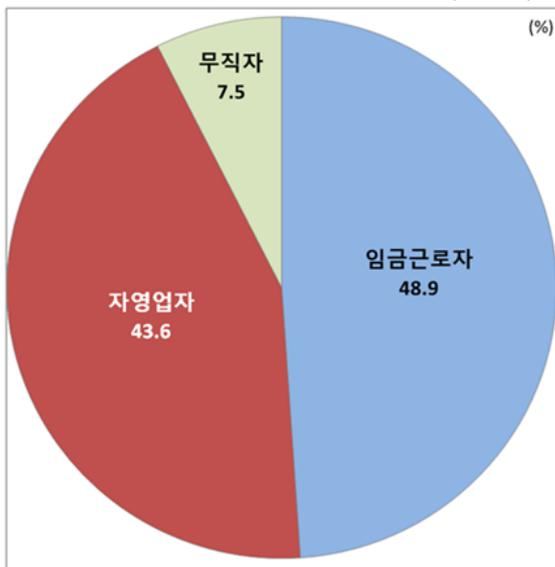
■ 시사점

자영업자 가구 중에서도 고용주 가구와 자영자 가구, 베이비붐세대 가구와 다중채무가구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고용주** 가구는 과도한 대출을 막고 안정적 사업소득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자영자** 가구를 위해서는 과당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은퇴한 **베이비붐세대** 가구가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여 성급하게 창업하지 않도록 '준비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다중채무가구**의 경우, 성실상환을 전제조건으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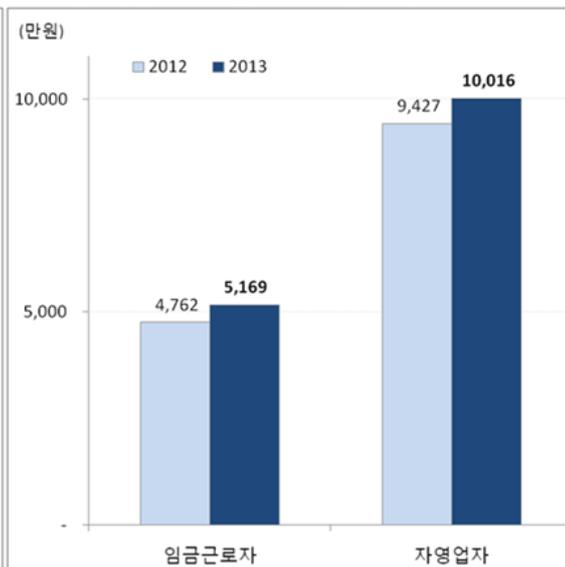
1. 자영업 가계부채의 분석 필요성

- (분석 필요성)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소득이 불안정하고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서 채무불이행 우려 상존
 -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는 총 부채의 43.6%를 차지하고, 가구당 부채규모도 임금근로가구의 약 두 배에 달함
 - 총 금융대출가구 중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은 23.7%인 반면, 총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비중은 43.6%에 달함 (2013년 기준)
 - 2013년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당 가계부채가 10,016만원에 달해,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원보다 매우 많음
 -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소득의 등락이 크고 채무상환능력도 미약
- (연구목적)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자영업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 비중(2013)>



<종사상지위별 가구당 가계부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1 :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비중은 고용주(20.3%), 자영자(21.9%), 무급가족종사자(0.1%), 기타(1.3%)로 구성됨.
 주2 :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 (분석방법) 자영업자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및 부채구조를 임금근로자 가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자영업자 가구의 특징 도출

- 분석지표 : 채무상환능력 분석지표는 채무상환비율 등을, 부채구조 분석지표는 다중채무가구 비중 등을 사용(하단 우측 표)

- 분석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외상·할부가 있는 금융대출가구

· 2013년 임금근로자 가구 중 금융대출가구 비중은 66.0%이고, 고용주 가구 및 자영자 가구의 금융대출가구 비중은 각각 78.1%, 68.4%임

- 정의 : 자영업자 가구 및 가계부채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별로 임금근로자 가구, 자영업자 가구(고용주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로 분류1)

· 가계부채란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외상·할부를 포함한 금융대출2)

<종사상지위별 가구 현황 > (만가구)				<가계부채 주요 분석 지표>	
		2012	2013	구분	주요 분석지표
총 가구	임금근로자	1,002	1,031	채무상환 능력	-가계부채 및 원리금상환액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 -채무상환비율(DSR)
	자영업자	427	429		
	고용주	96	100		
	자영자	331	329		
금융대출 가구	임금근로자	661	681	부채구조	-신용대출 비중 -비은행권 부채 비중 -상환방법 -다중채무가구 비중
	자영업자	294	303		
	고용주	78	78		
	자영자	216	22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총 가구는 2012년 1,788만, 2013년 1,814만 가구로, 무직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가구 포함.

- 1) 고용주란 1인 이상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자영자란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뜻함. 한편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를 포함.
- 2)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개념(자금순환 및 가계신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임대보증금이나 갯돈 등을 제외한 금융대출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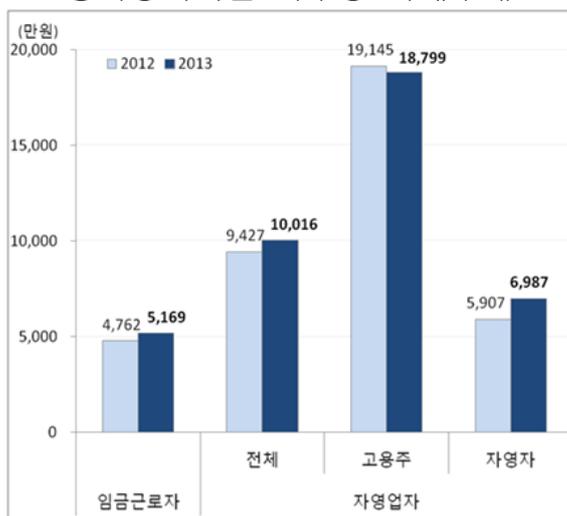
2.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

(1) 채무상환능력

① (가계부채 및 이자비용)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및 이자비용은 임금근로자 가구의 두 배에 달함

- 가계부채 :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는 임금근로자 금융대출가구에 비해 가계부채의 규모가 두 배에 육박
 -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 : 2012년 9,427만원에서 2013년 10,016만원으로 1억 원을 초과. 특히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는 같은 기간 5,907만원에서 6,987만원으로 18.3%나 증가
 - 임금근로자 금융대출가구 : 2012년 4,762만원, 2013년 5,169만원으로 자영업자 가구에 비하여 크게 적은 수준
- 이자비용 :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의 이자비용은 임금근로자 금융대출가구의 두 배를 초과
 -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 : 2012~2013년에 年이자지급액이 517만원에서 526만원으로 1.7% 증가. 특히 자영업자 가구는 330만원에서 371만원으로 12.4% 증가
 - 임금근로자 금융대출가구 : 2012년, 2013년 모두 245만원으로 변동 없음

<종사상지위별 가구당 가계부채>



<종사상지위별 가구당 年원리금상환액>

		年원리금상환액 (만원, %)		
		2012	2013	증감률
임금근로자	年원리금상환액	850	995	17.1
	이자지급	245	245	0.0
	원금상환	605	750	24.0
자영업자	年원리금상환액	1,374	1,545	12.4
	이자지급	517	526	1.7
	원금상환	857	1,020	19.0
고용주	年원리금상환액	2,419	2,556	5.7
	이자지급	1,033	973	-5.8
	원금상환	1,386	1,583	14.2
자영업자	年원리금상환액	996	1,197	20.2
	이자지급	330	371	12.4
	원금상환	666	826	24.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② (부채증가 원인) 자영업자 가구는 사업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임금 근로자 가구는 생활비 및 교육비, 부동산 구입을 위해 부채를 늘림

-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 : 31.1%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23.6%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가계부채 확대
 - 고용주 가구는 상대적으로 사업자금 마련(29.8%)을 위한 대출이, 자영자 가구는 생활비 마련(33.2%)을 위한 생계형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자영업자 평균 창업비용이 2010년 6,570만원에서 2013년 7,257만원으로 증가한 것도 사업자금 대출 확대의 한 요인
 - 특히 치킨집, 제과점, 호프집, 음식점 등의 생활밀접형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음식숙박업에서 창업비용이 2010년 7,540만원에서 2013년 9,234만원으로 연평균 7.0% 증가
 - 편의점, 서점 등과 같은 소매업의 창업비용은 연평균 6.4%, 미용실, 네일아트 등과 같은 개인서비스업의 창업비용도 연평균 7.1% 증가
- 임금근로자 금융대출가구 : 생활비 마련(35.7%), 교육비 마련(26.4%)을 위한 대출이 많음
 - 특히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이 20.9%로 자영업자 가구의 11.2%보다 매우 높음

<2012~2013년 가계부채 증가 원인>

(%)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자영자	
부동산 구입	20.9	11.2	16.1	9.6
사업자금	3.1	23.6	29.8	21.6
생활비	35.7	31.1	24.3	33.2
교육비	26.4	13.9	9.0	15.5
부채상환	7.0	14.6	16.8	13.9
기타	6.8	5.7	3.9	6.2

<자영업자 평균 창업비용>

(만원, %)

산업구분	2010	2013	연평균 증가률
전체	6,570	7,257	3.4
제조업	6,808	7,245	2.1
전기/가스/건설업	9,139	6,849	-9.2
소매업	6,198	7,460	6.4
음식/숙박업	7,540	9,234	7.0
운수/통신업	4,265	4,874	4.5
부동산/임대업	4,892	4,704	-1.3
사업서비스업	6,726	7,202	2.3
교육서비스업	6,769	6,840	0.3
오락/문화/운동	9,765	10,932	3.8
개인서비스업	4,338	5,328	7.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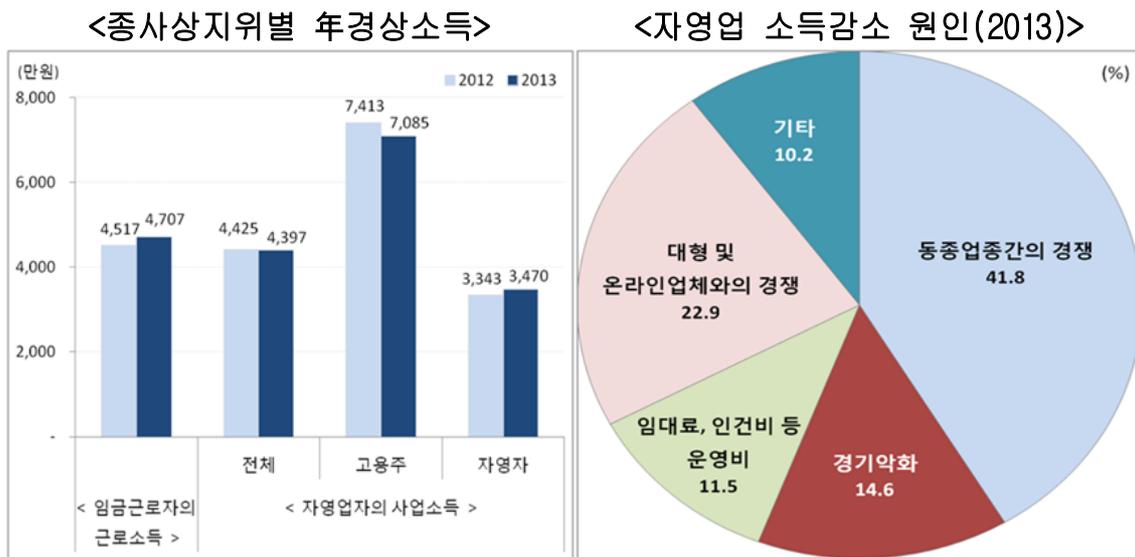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③ (소득) 임금근로자 가구는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가구는 오히려 감소

-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 : 사업소득이 2012년 4,425만원에서 2013년 4,397만원으로 감소
 - 고용주 가구의 사업소득이 7,413만원에서 7,085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
 -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3,343만원에서 3,47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지속

- 자영업 소득감소의 원인은 주로 '경쟁과밀'
 -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원인은 동종업종간의 경쟁(41.8%), 대형 및 온라인업체와의 경쟁(22.9%), 경기악화에 따른 고객감소(14.6%), 임대료 등 운영비 부담(11.5%) 순임
 - 지역 내 동종업종이 과밀하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밀접형 자영업³⁾ 창업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 임금근로자 금융대출가구 : 근로소득이 2012년 4,517만원에서 2013년 4,707만원으로 증가
 - 임금근로자 가구는 중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경상소득도 안정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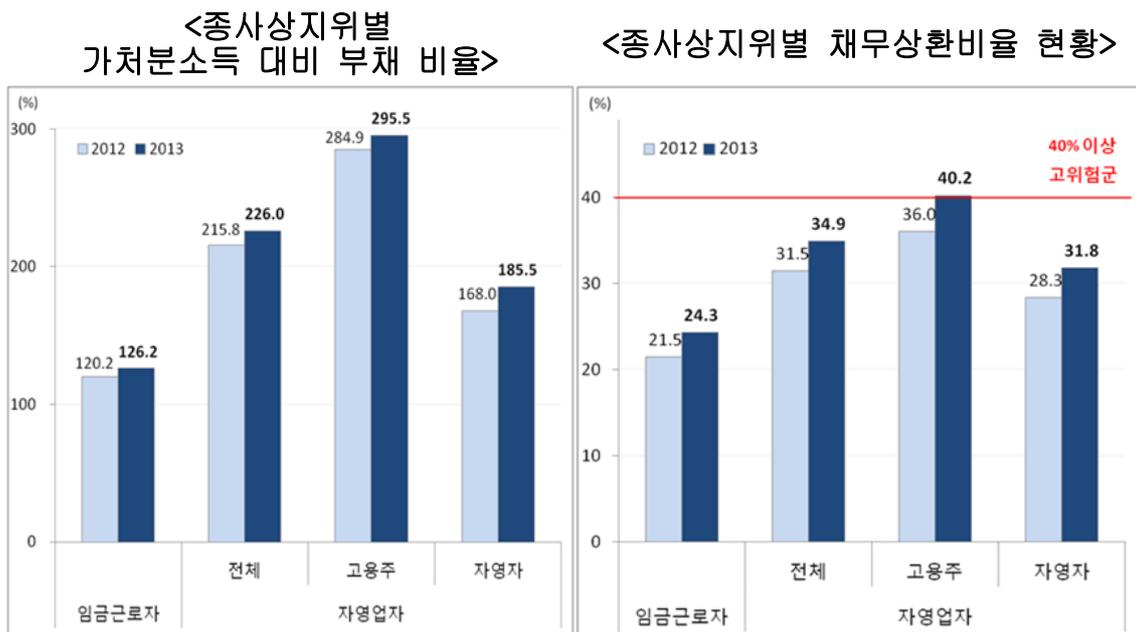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자료 : 중소기업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3) 경제활동과 밀접한 업종으로서 전국 사업자수가 최소 5,000개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에서 30개 생활밀접형 자영업자로 정의(국세청).

④ (채무상환능력) 자영업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가운데 악화 속도도 빠름

-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 : 年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12년 215.8%에서 2013년 226.0%로 10.2%p 상승하였고, 채무상환비율(DSR; $\frac{\text{원리금상환액}}{\text{가처분소득}}$)도 31.5%에서 34.9%로 3.4%p 상승
 - 자영자 가구는 年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12~2013년에 17.5%p 상승하였고 채무상환비율도 3.5%p 상승
 - 고용주 가구는 年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0.6%p 상승하였고, 채무상환비율은 36.0%에서 40.2%로 4.2%p 상승하여 '고위험군'에 진입
 - 고용주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하락은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2012년 6,720만원에서 2013년 6,361만원으로 -5.3% 감소
- 임금근로자 금융대출가구 : 年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12년 120.2%에서 2013년 126.2%로 6.0%p 상승하였고, 채무상환비율도 21.5%에서 24.3%로 2.8%p 상승
 - 임금근로자 가구는 자영업자 가구보다 年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00%p 가량 낮고 채무상환비율도 10%p 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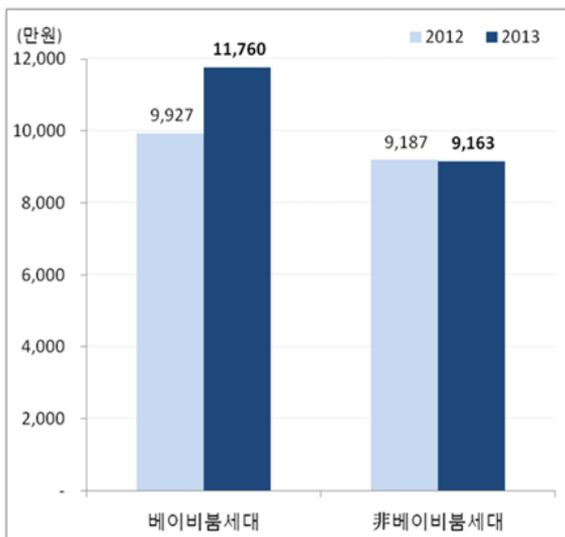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⑤ (베이비붐세대) 자영업자 중에서도 베이비붐세대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가파름

- 자영업 금융대출가구 중 베이비붐세대 가구 : 가계부채가 2012년 9,927만원에서 2013년 11,760만원으로 18.5%나 급증
- 은퇴한 상당수의 베이비붐세대가 자영업으로 이동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자영업자는 2012년 713만명에서 2013년 705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50대 베이비붐세대의 자영업자 규모는 212만명에서 217만명으로 오히려 증가
 - 50대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 후 자영업을 창업하면서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사업종의 자영업 과밀화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폐업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자영업 금융대출가구 중 베이비붐세대가 아닌 가구 : 가계부채가 2012년 9,187만원에서 2013년 9,163만원으로 소폭 감소(-0.3%)
 - 이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베이비붐세대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

<자영업자 중 베이비붐세대-
非베이비붐세대의 가계부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자영업자 추이(취업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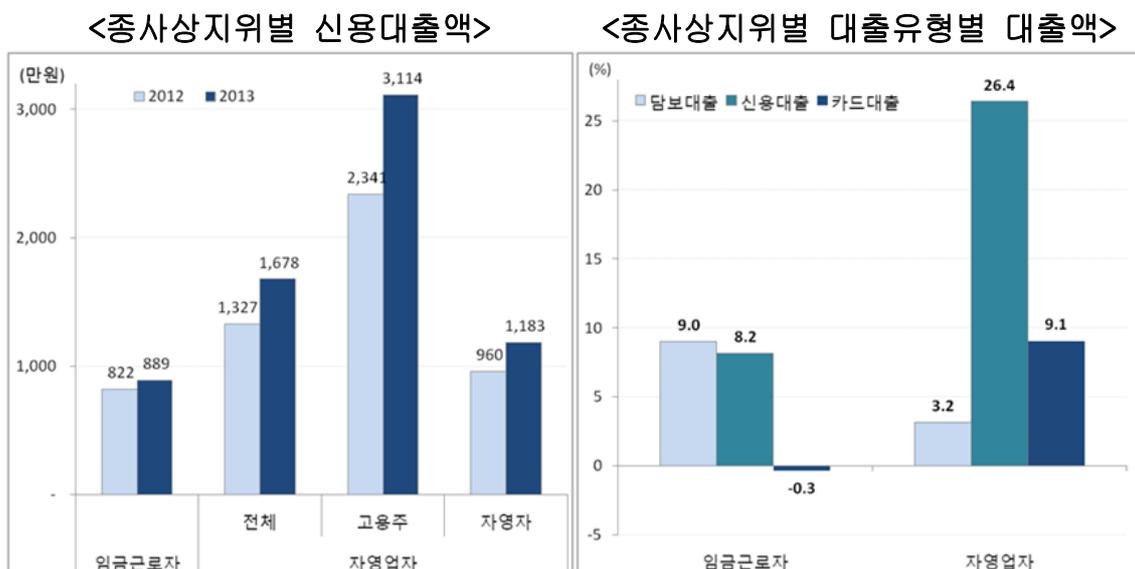
	(천명, %)		
	2012	2013	증감률
전체	7,125	7,051	-1.0
50대 이하	3,183	3,017	-5.2
50대	2,117	2,165	2.3
60대 이상	1,825	1,869	2.4
50대 비중(%)	29.7	30.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2) 가계부채 구조

⑥ (대출유형) 자영업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

-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 : 신용대출액이 2012년 1,327만원에서 2013년 1,678만원으로 26.4% 증가
 - 특히 고용주 가구는 신용대출액이 같은 기간 2,341만원에서 3,114만원으로 33.0% 증가
 -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5.85%로 주택담보대출 금리(3.75%)나 예·적금담보대출 금리(4.28%)보다 높아 이자부담 가중(2014년1월 신규취급액 기준)
- 자영업자는 사업체 운영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이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자영업 운영자금 대출 경험자 비중이 약 41.0%(중소기업청)
 -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출이 신용대출의 형태로 증가하는 경향
- 임금근로자 금융대출가구 : 신용대출액이 2012년 822만원에서 2013년 889만원으로 8.2% 증가
 - 임금근로자 가구는 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 받는 경우가 많아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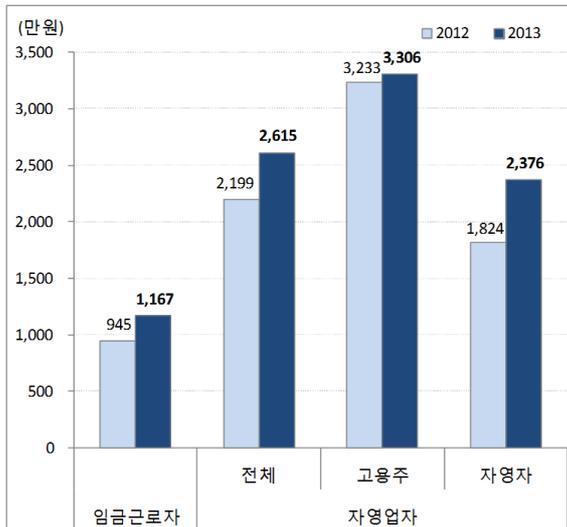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신용대출액 비중은 담보대출액, 신용대출액, 카드이용 대출액을 기초로 분석.

⑦ (대출기관)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비은행권 부채의존도 확대

-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 : 비은행권 부채가 2012년 2,199만원에서 2013년 2,615만원으로 18.9% 증가하여, 총대출 중 비중이 24.1%에서 26.9%로 2.8%p 상승
 - 특히 자영자 가구는 같은 기간 1,824만원에서 2,376만원으로 30.3% 증가하여, 총대출 중 비중이 32.4%에서 35.3%로 높은 수준 지속
 - 자영자 가구는 소득수준과 영업장 소유비중이 낮아 신용도가 떨어지고, 결국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의존도 확대
 - 상호저축은행(16.35%), 상호금융(6.09%), 생명보험회사(9.63%) 등의 비은행권 금리는 은행권 금리(5.85%)보다 크게 높아 이자지급 부담을 가중시킴(2014년 1월 신규취급액 기준)
- 임금근로자 금융대출가구 : 비은행권 부채가 2012년 945만원에서 2013년 1,167만원으로 증가하여, 총대출 중 비중이 20.7%에서 23.4%로 2.7%p 상승
- 2011년 6월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 특히 자영자가 비은행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2012년~2013년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은 3.0% 증가한데 반해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은 7.0% 증가

<종사상지위별 비은행권 대출액>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담보대출액, 신용대출액, 카드이용 대출액을 기초로 분석.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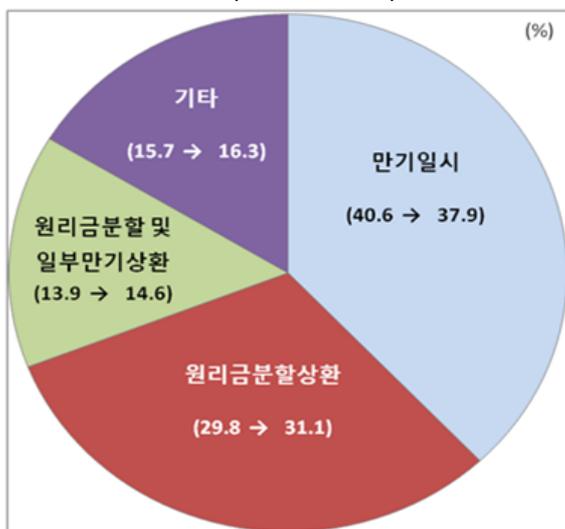
	(조원, %)		
	2012	2013	증가율
은행	467	481	3.0
비은행	193	206	7.0
저축은행	9	9	3.8
협동조합	21	23	7.6
상호금융	124	131	5.8
새마을금고	37	42	12.2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2년~2013년 동안의 가계대출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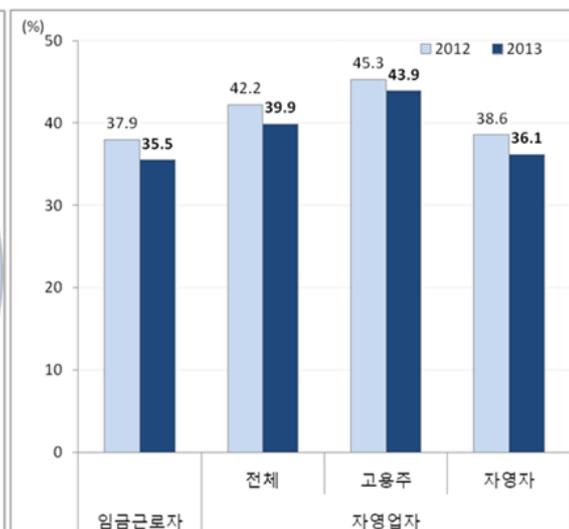
⑧ (상환방법)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원리금분할상환이 늘었으나, 여전히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수준

- 금융대출 상환방법 중 만기일시상환의 비중은 2012년 40.6%에서 37.9%로 2.7%p 감소한 반면, 원리금분할상환은 29.8%에서 31.1%로 증가
 - 만기일시상환방식의 평균 대출금리는 4.03%로 분할상환방식의 3.83%보다 높음(2014년 3월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 만기일시상환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입음
 - 정부는 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0%로 확대하고, 분할상환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 또한 고정금리 대출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
 - 2013년 현재 만기일시상환 비중의 경우, 고용주 가구는 43.9%, 자영자 가구는 36.1%이며, 임금근로자 가구도 35.5%로 높은 수준
 - 한편 원리금분할상환 비중의 경우, 고용주 가구는 19.3%, 자영자 가구는 32.0%이며, 임금근로자 가구는 37.1%로 높은 수준

<금융대출의 상환방법 비중 (2012~2013)>



<종사상지위별 금융대출의 만기일시상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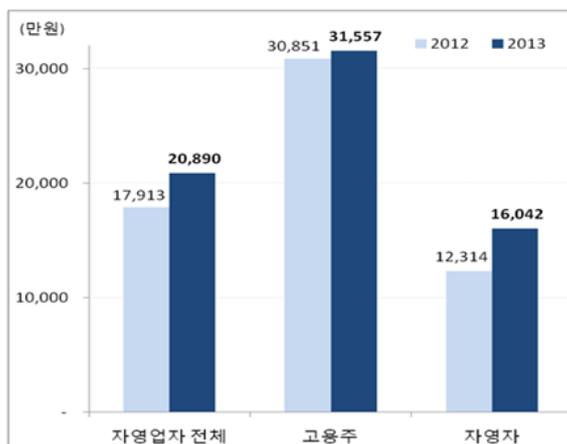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1 : 담보대출액, 신용대출액, 카드이용 대출액을 기초로 분석.
 주2 : 괄호는 2012년→2013년의 비중 변화.

⑨ (다중채무가구) 자영업자 중에서도 다중채무가구4)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하게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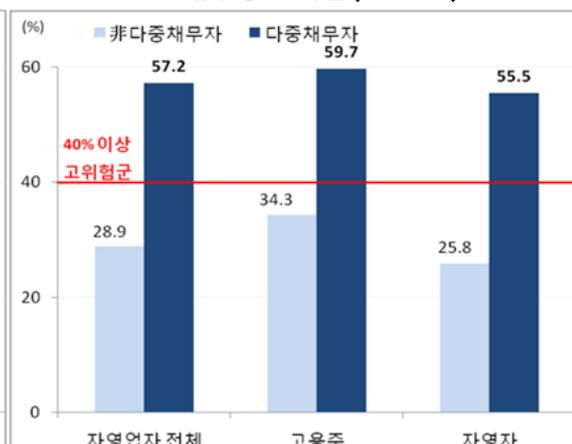
- 부채규모 :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가구가 非다중채무가구보다 부채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가파르게 증가
 -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 중 다중채무가구 : 가계부채가 2012년 17,913만원에서 2013년 20,890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16.6%). 부채규모도 큼
 - 특히 자영업자 다중채무가구는 같은 기간 12,314만원에서 16,042만원으로 30.3% 증가. 저금리 은행대출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비은행에서까지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추정
 -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 중 非다중채무가구 : 가계부채가 2012년 7,855만원에서 2013년 7,222만원으로 감소(-8.1%)

- 채무상환비율 :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가구가 非다중채무가구보다 채무상환비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가파르게 상승
 -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 중 다중채무가구 : 채무상환비율이 2012년 52.5%에서 2013년 57.2%로 4.7%p 상승. 채무상환비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가파르게 상승
 - 자영업자 다중채무가구는 같은 기간 53.0%에서 55.5%로 2.5%p 상승하였고, 고용주 다중채무가구는 52.0%에서 59.7%로 7.7%p 상승
 -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 중 非다중채무가구 : 채무상환비율이 2012년 27.3%에서 2013년 28.9%로 1.6%p 상승

<자영업자 다중채무가구의 부채>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非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비율(2013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다중채무자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11.6%, 자영업자의 20.4%(2013년).

4) 여기서 다중채무가구는 3건 이상의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로서, 어느 한 대출이 부실화되면 연쇄적으로 부실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음.

3. 시사점

- 자영업자 가구 중에서도 고용주 가구와 자영자 가구, 베이비붐세대 가구, 다중채무가구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마련
 - **고용주 가구** : 적정한 투자와 안정적 사업소득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 고용주 가구는 상대적으로 큰 사업규모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가계부채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업소득 감소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음
 -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경기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지원
 -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적합업종 탐색을 지원하고, 해당 산업의 전문가로부터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확충
 - **자영자 가구** : 영세자영업자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 개선
 - 자영자 가구는 사업소득이 절대적으로 작아 생계형 대출에 의존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높아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동종 업종의 과밀분포 및 과잉경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 창업자들이 과밀 업종 및 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가이드 마련
 - 비은행권 및 카드대출,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자영자 가구를 저리의 은행권으로 이전하는 정책 필요
 - 사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 등을 통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
 - **은퇴한 베이비붐세대 자영업 가구** :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붐세대가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여 성급하게 창업하지 않도록 유도
 - 충분한 준비가 없는 성급한 창업은 과도한 부채와 폐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관심 있는 업종에 재취업하여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창업하도록 유도
 - 유사업종간의 과다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선정 및 경영노하우 교육시스템이 확충될 필요
 - **다중채무 자영업 가구** : 성실상환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바뀐드림론을 통해 다중채무자가 고금리대출에서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예방책 마련

김광석 선임연구원 (2072-6215, gskim@hri.co.kr)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별첨] 종사상지위별 금융대출가구의 자산·부채·소득 구조

< 종사상지위별 금융대출가구의 자산·부채 구조 >

(만원,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2012	2013	2012	2013	고용주		자영자	
					2012	2013	2012	2013
총자산	28,729	28,444	49,766	49,329	85,069	78,649	36,981	39,215
저축액	5,276	5,383	8,129	8,767	16,133	16,231	5,230	6,192
총부채	6,609	6,970	11,876	12,763	23,006	23,087	7,742	9,142
금융대출잔액*	4,762	5,169	9,427	10,016	19,145	18,799	5,907	6,987
가처분소득	3,962	4,096	4,367	4,432	6,720	6,361	3,515	3,766
원리금상환액	850	995	1,374	1,545	2,419	2,556	996	1,197
이자지급	245	245	517	526	1,033	973	330	371
원금상환	605	750	857	1,020	1,386	1,583	666	826
원리금상환액 /가처분소득(%)	21.5	24.3	31.5	34.9	36.0	40.2	28.3	31.8
금융대출잔액 /가처분소득(%)	120.2	126.2	215.8	226.0	284.9	295.5	168.0	185.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1 :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대출잔액'을 '가계부채'로 정의.
 주2 : 총자산 = 저축액(주식채권포함) +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 + 실물자산(부동산 포함).
 총부채 = 금융대출잔액 + 갯잔후 불입금액 + 임대보증금.

< 종사상지위별 금융대출가구의 금융대출잔액 구조 >

(만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2012	2013	2012	2013	고용주		자영자	
					2012	2013	2012	2013
금융대출잔액	4,762	5,169	9,427	10,016	19,145	18,799	5,907	6,987
담보대출	3,754	4,092	7,792	8,038	16,428	15,266	4,664	5,545
신용대출	822	889	1,327	1,678	2,341	3,114	960	1,183
카드대출	89	89	87	95	91	129	86	8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0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7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3월 27일	4월 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68	2.80	0.12%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2.06	103.87	1.81 ¥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781	1.3766	-0.0015\$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264	16,573	309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4,623	15,072	44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8	2.88	0.00%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71.5	1,057.9	-13.6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78.0	1,993.7	15.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3월 27일	4월 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1.28	100.29	-0.99\$
	Dubai	107.99	100.38	107.88	104.04	101.29	-2.75\$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04.65	303.79	-0.86\$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8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7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5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1	370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